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계급이 없는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 ②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③ 우경이 시작되어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
- ④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 ⑤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②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 고인돌, 비파형 동검, 환호형 취락 등을 통해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고인돌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흙자귀, 팽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계급 사회의 발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고인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통 탁자식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판석 형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편평한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부족간 전쟁이 잦아지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여 마을 주위에 목책이나 환호를 설치하였다(부여 송국리, 울산 검단리 우적).

① 생산력이 충분치 못해 잉여생산물이 나오지 못한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였다.

③ 우경은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밟는 데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점차 확대되었다.

④, ⑤ 신석기 시대에 농경, 목축이 시작되자 정착생활을 하며 움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는 음식을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껍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뼈만 추려 껍 속에 안치한다.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껍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로써 모양을 새긴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결혼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②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
- ③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 ⑤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게 하였다.

정답: ②

* 초기 국가 옥저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② 고구려는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④ 부여와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3. 지도에 표시된 유적을 통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우산국 정벌 과정을 조사한다.
 - ㄴ. 거서간 칭호의 유래를 파악한다.
 - ㄷ. 왜와의 교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ㄹ.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금관) 가야의 역사

- 대규모 덧널무덤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지배층 무덤군이고,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초대 왕이다.

- 낙동강 하류 유역의 변한 땅에서 가야의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 건국 설화에 따르면 신라 때인 42년(유리왕 19) 구지봉(龜旨峰)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수로왕 등 6명의 가야국 시조가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 국가 조직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에 가야는 연맹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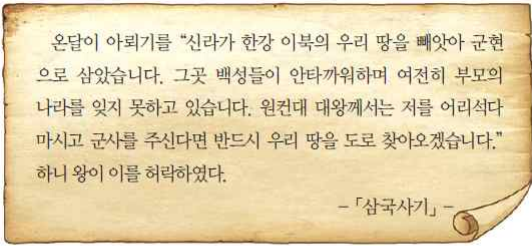
가야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야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

㉠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율릉도)을 정벌하면서 율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우산국민들이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 나무로 만든 사자를 가져와 위협하였다고 한다).

㉡ 신라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박혁거세, 태양의 의미-군장), 차차웅(남해왕, 무당), 이사금(유리왕 이후, 연장자), 마립간(내물왕 이후, 대군장), 왕(지증왕 이후, 중국식)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고 왕권이 강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4.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433	475	554	612	660	675
(가)	(나)	(다)	(라)	(마)	
나·제 동맹	웅진 천도	관산성 전투	실수 대첩	황산벌 전투	매소성 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고구려 온달 장군이 활약한 시기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 한강 전역을 상실하였고(475), 문주왕(475~477)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백제 성왕(523~554)은 부왕인 무령왕(501~523) 대의 국력 신장을 발판삼아,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또한 고구려 양원왕 때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551년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신라-상류, 백제-하류), 곧 신라에게 하류 지역을 빼앗겼다(553). 이로써 나제 동맹은 완전 결렬되고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옥천)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한편 평강공주(평원왕의 딸)와의 결혼으로 유명한 고구려 온달 장군은 영양왕 1년 신라에 빼앗긴 한강 하류 지역의 아차산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590).

5. (가), (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신령한 사람이 (자장에게) 일러서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해치려고 하니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9개 나라가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하였다. 귀국하여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나)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아 창고가 텅텅비어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이로 인해 사방에서 도둑이 범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별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 ① (가) -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 ② (가) -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③ (나) - 각간 위흥으로 하여금 삼대목을 편찬하게 하였다.
- ④ (나) -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 ⑤ (가), (나) - 진골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정답: ③

* 신라 선덕여왕과 진성여왕

(가) **선덕 여왕(632~647)**: 신라 최초의 여왕이며 제 27대 왕으로 즉위했다.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에 힘썼으며 불법 등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했다. 첨성대, 자장 율사의 건의(643)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국방상 주요 거점인 대야성을 백제에게 빼앗기고(642), 상대등 비담(毗曇)과 염종(廉宗) 등이 여왕의 무능을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는 등 말년에 시련이 많았다.

(나) **진성 여왕(887~897)**: 9세기 말 신라의 마지막 여왕으로 이 때에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

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그리하여 당에서 귀국한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시무 10조, 894)을 건의한 것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는 각간위흥과 대구 화상이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 삼대목(888)이라 하는 향가집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아깝게도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① 신라의 청소년 단체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장려하여 조직이 확대되었다(576).

② 신라 법흥왕 때에 이차돈(?~527)이 자신 순교를 하여(목에 흰피가 났다고 함) 불교를 공인케 되었다.

④ 신라 삼국 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며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⑤ 신라는 진덕 여왕(647~654)을 끝으로 성골 출신 왕이 소멸되고 무열왕(김춘추, 654~661)이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다.

6.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 종목: 국보 제9호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 소개: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정제된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다. 탑신부의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목조 건물 양식을 이용하였다.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내용을 탑신부에 새겨 놓았다.



정답: ①

*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과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다보탑(국보 20호):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③ 발해 영광탑: 당 문화적 건축물로 길림장백진 교외에 소재하였는데, 13미터 높이의 5층 벽돌 탑이다.

④ 분황사 모전 석탑(국보 30호):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된 경주 분황사에 소재하며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이 탑은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무왕 때(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였습니다.
- ② 시경, 서경, 역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 ③ 소격서가 주관하는 행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④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 ⑤ 연개소문이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자 장려하였습니다.

정답: ②

* 도교에 대하여

- 왼쪽은 백제 금동대향로이고, 오른쪽은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 중 현무도이다.

-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도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

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그리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예종 때 도교 사원이 처음 건립되었고, 이 곳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과 별들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가 개최되었다. 도교에는 불교적인 요소와 도참 사상도 수용되어 일관된 체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교단도 성립하지 못한 채 민간 신앙으로 전개되었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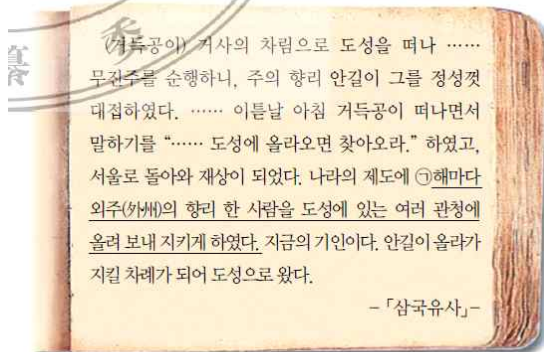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도교는 크게 위축되어 사원이 정리되고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소격서를 설치하고,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② 유교는 5경을 기본으로 하는데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가리킨다

⑤ ①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보장왕 2년(643)에 도교의 수입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당에 요청하자, 당 태종은 도사 속달(叔達) 등 8인과 노자의 도덕경을 보냈었다. 또한 불교 사찰(僧寺)을 도관(道觀)으로 취하는 등 도교 진흥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불교 및 유교에 대한 억압을 꾀하였다. 이는 당시의 불교가 왕실이나 각 귀족집단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도교정책은 곧 왕권과 귀족세력에 대한 통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

8. 밑줄 그은 ㉠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 ② 대간으로 불리며 왕의 권력 행사를 비판하였다.
- ③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④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 ⑤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③

* 상수리 제도와 기인 제도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상수리 제도는 고려의 기인(其人) 제도로 연결되어지는데, 고려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지방 출신으로서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중앙의 관리로 복무하게 하면서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직등을 맡게하는 사심관 제도와 향리의 자제를 상경 시위하게 하는 제도인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①, ④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사족(士族)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향청)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② 고려의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조선 시대에는 사간원(간쟁)과 사헌부(감찰)가 대간 기능을 담당하였다.

⑤ 고려의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9. 다음 두 사건의 공통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 바지를 입어서
그들을 적고적(赤袴賊)이라 불렀다. 주현을 공격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이르렀다.

- 「삼국사기」 -

○ 공주 명학소의 백성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 산행 병마사
라고 자칭하며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 「고려사」 -

- ① 왕위 계승 문제로 발생하였다.
- ② 골품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 ③ 새로운 왕조 개창을 목표로 하였다.
- ④ 가혹한 조세 수탈에 대해 저항하였다.
- ⑤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천도를 주장하였다.

정답: ④

* 신라 말과 고려 무신 정권기 농민반란

-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특히 진성여왕 10년(896), 도적들이 나라의 수도 서남쪽 방면에서 일어나 붉은색 바지를 입어 스스로 달리 하여 사람들이 적고적이라 불렀다. 그들은 신라의 주와 현을 무찌르고 서울(경주)의 서쪽 모량리에 이르러 민가를 약탈하였다.

- 무신정변(1170)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에 의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1174~1176),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이어 남부 지방에서도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명종 때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가(1176), 운문, 초전에서는 김사미, 효심이 봉기하였다(1193). 봉기를 일으킨 이들은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신라 부흥 운동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⑤ 고려 태조 이래의 복진정책을 계승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과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칭제건원)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불교+도참사상) 사상(서경파)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개경파)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 계승 이념(개경파)의 충돌 등이 얹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10.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 낙산사는 화엄 사상을 정립한 (가)이/가 신라 문무왕 때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① 수선사 결사를 통해 불교계를 개혁하려 하였다.
- ②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③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⑤ 고통 받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① 무신 집권(1170) 이후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전남 순천에 소재한 송광사(길상사->송광사->조계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정혜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②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의 제자인 혜심(1178~1234)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③ 고려 전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한 의천(1055~1101)은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고려는 물론이고 송, 요,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흔히들 속장경이라 함)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④ 통일 신라기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정답: ⑤

* 화엄 사상을 정립한 의상(625~702)

-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는 의상이 세운 사찰로, 그가 수련한 의상대(義湘臺)가 유명하다.

- 신라 진골 출신의 의상(625~702)은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고 중국과 다른 독특한 화엄사상을 전개하였다(해동 화엄종). 즉,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11. 다음 유희를 남긴 왕의 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첫째, 불력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장려하고 사원의 폐단을 엄단하라.
.....
다섯째, 서경은 지맥의 근본이니 3년마다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라.
.....
열째,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고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삼아라.

- ① 금국 정벌을 천명하였다.
- ②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 ③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여 문물을 수용하였다.
- ④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 ⑤ 일본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와 부여 계승을 표방하였다.

정답: ②

* 훈요 10조를 남긴 고려 태조의 업적

- 보기의 자료는 훈요 10조이다.

- 궁예를 몰아내고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고(940),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

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요)이 낙타 50필을 보내자 사신은 섬으로 유배보내고 낙타는 만부교에서 굶겨 죽인 사건(942,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 이는 북진 정책의 의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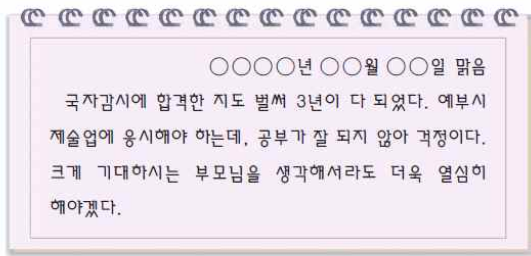
① 금국 정벌을 천명한 고려의 왕은 없고, 묘청이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1135).

③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무령왕(501~523)이 좋은 예이다.

④ 신라 말 흥덕왕(826~836) 대에 장보고(?~846)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⑤ 발해 2대왕 무왕은 727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였다.

12. 다음 가상 일기에 나타난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가. 하급 실무직을 뽑는 취제가 운영되었다.
 나.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었다.
 다.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라. 인재를 천거받아 대책(對策)으로 시험본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③

* 고려의 과거 제도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고려 광종 때에 중국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 건의에 의해 실시된 과거 제도(958)는 문과인 제술업, 명경업과 잡과로 나뉜다.

제술업(진사과)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생원과)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명경, 제술업은 초기에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이 직접 본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 입학 시험)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도록 법제화 되었다. 이 때 예부시 시험관인 지공거(좌주)와 그의 주관 하의 급제생인 문생

간에는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즉 문생이 좌주를 대할 때에는 마치 아버지(좌주)와 아들(문생)의 관계의 예를 차렸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무과는 예종 때 무학재(1109)가, 공양왕(1390) 때 무과가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

승과는 교종선과 선종선 양과가 있어 합격자는 승계와 토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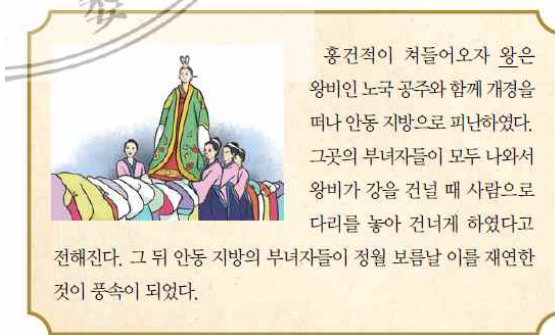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 조선 시대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되는 천거와,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과거응시가 어려운 사람이 응시하는 취재,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음서(문음)를 통하여 벼슬을 할 수 있었다.

㉡ 성종 때(1469~1494)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가 연산군 때의 2차례의 사화(무오.갑자)로 몰락했던 사림 세력을 중종(1506~1544)은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1482~1519)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현량과는 중국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만든 것으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에 의해 대책(對策)만을 시험보고 채용하는 제도이다.

13.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③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숙청하였다.
- ④ 신돈을 기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정답: ①

* 공민왕의 정책

- 공민왕 때(1351~1374) 2차례에 걸쳐 중국 대륙으로부터 홍건적이 쳐들어왔는데, 2차 때(1361)에는 개경이 함락되어 국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다(안동 닛다리 밭기 유래).

- 충숙왕의 둘째 아들이자 충혜왕의 동생인 공민왕(1351~1374)은 원의 기항후의 후원 속에 왕위에 오른 뒤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

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은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면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① 광종(949~975)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 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건립 연대가 1200년대 초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정답: ②

*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 또한 1376년 중수된 오래된 건물이며, 배흘림 기둥, 삼중으로 맵시 있게 겹쳐진 포작, 이중 서까래로 인한 지붕의 가벼운 곡 선등이 이 건물의 특색이며, 전체적으로 장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은 1308년으로 건립 연대가 확실하여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③, ④, ⑤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 화엄사 각황전(1702, 국보 67호),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1605)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5.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상께서 이르사기를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많으므로, 군왕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사특함,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다 드러내어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 신은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부어 겨우 책을 만들었사오나, 별로 보잘것없어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 진삼국사기표 -

- ①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 ②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③ 서경에서 묘청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였다.
- ④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다.
- 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답: ③

*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

- 출전이 ‘진삼국사기표’(삼국사기를 편찬하여 왕께 올리는 글)라는 것을 통해 김부식(1075~1151)임을 알 수 있다.

-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1075~1151)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 일파를 진압한 뒤 김부식은 구삼국사적(고구려 계승의식과 북진정책) 역사의식을 전환하면서 자아의식과 현실비판의 수단으로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추정되는 역사서)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으며, 신라 계승 의식이 많이 반영되었다.

① 고려 중기 문종 때 최충(984~1068)은 9재 학당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고 그가 이끈 문헌공도는 사학 12도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명성이 높았다.

② 고려 말 충선왕은 원의 연경에 만권당(1314)을 세우고 이제현(1287~1367) 등의 성리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④ 전임 무인 통치자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은 최충헌(1196~1219 집권)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⑤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16.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현물로 거둔 조세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②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③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④ 마패를 소지한 공무 여행자에게 역마를 제공하였다.
- 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였다.

정답: ①

* 조운 제도

고려, 조선 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세곡)를 수로를 이용하여 중앙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조운 제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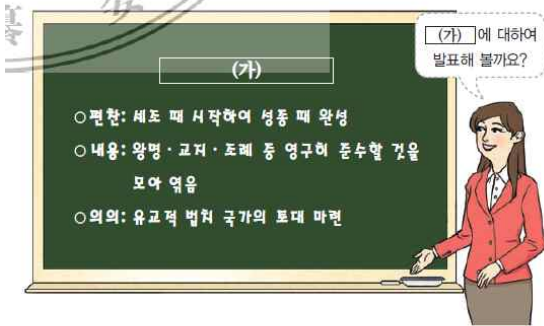
조선 시대에는 각 군현에서 거둔 조세를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영류 지역: 중앙(경창)으로 세곡을 운송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는 지역. 고려 시대에는 북계와 동계, 조선 시대에는 평안, 함경도와 제주도가 해당. 고려의 북계, 동계와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까워 세곡을 군량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어 쌀이 많이 나지 않고, 바닷길도 험한 데다 운송 거리까지 멀어 조운에서 제외되었다.

②, ③, ④ 조선 시대에는 군사 조직과 아울러 교통과 통신 체계도 정비되었다. 횃불 연기로 군사적인 위급 사태를 알리기 위한 봉수제가 정비되고,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패 소지 공무 수행자에게 역마와 숙박을 제공하는 역참(역원)이 설치되어 국방과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이 한층 쉬워졌다.

⑤ 조선 시대에는 춘궁기인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환곡제를 운영하였다.

1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업무 관련 내용이 일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② 대전통편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습니다.
- ③ 왕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④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알리기 위하여 간행되었습니다.
- ⑤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답: ⑤

* 경국대전

조선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썼다. 건국 초기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조준은 경제육전(1397)을 편찬하였으나, 통일적인 조종지법의 필요성을 느꼈다.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 법전의 편찬은 조선 초기에 정비된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가 많이 지남에 따라 후속 법전도 마련되었다. 1746년(영조 22)에는 각종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을 편찬하여 시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법전이 나타났고,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속대전> 이후의 법령을 합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대전통편>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의 법령을 추가한 <대전회통>이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서 1865년(고종 2)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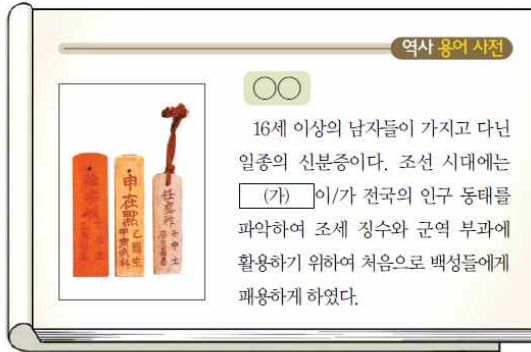
①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③ 조선은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실록을 편찬하였다(태조~철종).

④ 조선 세종 대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1431~1434).

18. (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학술 연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 ② 부산포, 제포, 염포의 삼포를 개항하였다.
- ③ 사병을 혁파하고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였다.
- ④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 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정답: ③

* 호패제를 실시한 태종의 업적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써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하여 정도전 등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1400~1418)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인 호패를 착용케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신문고를 달았으며,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① 정조(1776~1800)는 즉위하자 곧 일종의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1776)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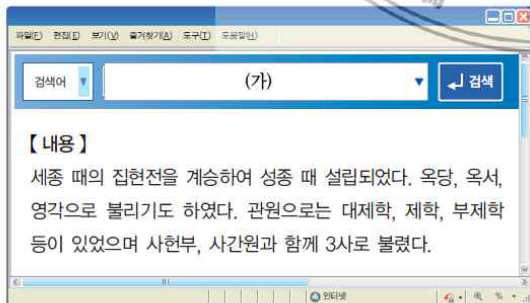
② 세종(1418~1450) 끈질긴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1608~1623)은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1610~1613).

⑤ 조선 성종 때(1469~1494)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1485).

19.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외교와 과거 시험을 관장하였다.
- ②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다.
- ③ 나라의 큰 죄인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
- ④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 ⑤ 경연을 주관하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⑤

* 홍문관

조선의 중앙 관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의정부는 중국의 최고 관부인 3성 6부와는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최고 관부로서,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실권은 약화되었다.

이.호.예.병.형.공조로 구성된 6조 중 문관과 무관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의 전랑(정5품)과 좌랑(정6품)의 전랑(銓郎)은 벼슬은 낮지만 인사권을 갖는 선망의 요직이고, 특히 이조 전랑은 후임자 자천권도 있어 훗날 봉당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6조 아래에는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의정부와 6조의 고관이 중요 정책 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각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헌부(주로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홍문관(일명 옥당, 집현전 계승,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이라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심의·승인하는 서경, 왕께 간언을 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 ① 6조 중 예조가 의례, 교육(과거제 포함), 외교를 담당하였다.

20. 다음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1점]

수행평가 보고서

제목: 역사의 라이벌

	
• 역성 혁명 반대 • '동방 이학의 시조'로 불림 • 저서: 포은집	• 조선 건국 주도 •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 주장 • 저서: 삼봉집

- ①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 ②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수용하였다.
- ③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원 세력을 배경으로 대농장을 차지하였다.
- ⑤ 홍건적과 왜구의 토벌을 통해 성장하였다.

정답: ②

* 정몽주와 정도전

공민왕(1351~1374)이 반원자주 정책과 원과 결탁하여 대농장을 차지한 권문세족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고(1352), 국가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자 이색(성균관 중흥의 주역), 정몽주(동방 이학의 원조), 정도전, 김구용, 박상충, 이숭인 등이 전문적으로 성리학을 연구 토론하면서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즉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사후 우왕 때에는 이인임으로 대표되는 권문세족의 반동정치가 있게 되자, 이들은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이성계 신흥 무인세력과 결탁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1388)으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 때 신진 사대부 사이에는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 대다수의 온건 개혁파는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반면, 정도전, 조준 등 급진 개혁파는 전제 개혁을 시행하고(과전법, 1391)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 혁명을 주장하였다.

급진 개혁파는 이성계를 옹호하며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폐가입진). 이들은 역성 혁명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이성계는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①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인 문벌귀족은 고위 관직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등 재산을 모았고, 유력한 가문과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③ 최충헌 집권 이전 무신 정권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2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대마도 원정에 동원되었다.
- ㄴ.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다.
- ㄷ. 돌격선인 거북선으로 개량되기도 하였다.
- ㄹ.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사용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판옥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학익진으로 유명)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선상에 화포를 적재할 수 있었던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군선으로 을묘왜변(1555) 때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선체가 커 많은 전투원과 화포 그리고 각종 군수품을 적재할 수 있고, 옥(屋)을 설치하여 주갑판에 있는 노요원과 사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갑판에서 화포의 구사를 용이하게 하여 전투효율을 높인 것이 바로 전승 요인이 되었다

거북선은 판옥선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판옥선의 단점을 보완·개량한 군선이었다. 판옥선의 장점이란 선체가 높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고 포좌를 상갑판에 설치하여 화력의 효율을 높였다는 점이다. 거북선은 이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주갑판 위에 상갑판을 설치하고 노요원과 사수를 주갑판에, 포요원을 상갑판에 위치케 하고, 상갑판 위를 덮개로 씌워 전투요원까지 안전을 보장하려 하였다. 그리고 판옥선의 단점인 선체가 무겁고 속력이 느린 점을 보완키 위해 선체를 판옥선보다 작게 만들었다.

㊸ 고려 말 최무선은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22.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 ② 사초에 조의제문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③ 서인은 기년복을, 남인은 3년복을 주장하여 일어났다.
- ④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 ⑤ 왕실의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답: ④

* 갑술환국(1694)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장희빈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과 소론) 재집권

① **기축옥사(1589):**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하여 서인(정철 주도)의 동인에 대한 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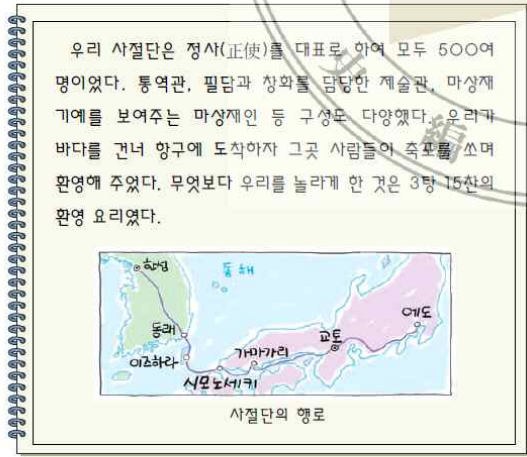
② **무오사화(1498):** 사림의 태두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를 제자인 김일손이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 최초의 사화(士禍)

③ **기해예송(1659):**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는데,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기해)설과 9개월(갑인)설을 주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기해)과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⑤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그가 죽은 뒤, 견제 봉당이 없는 가운데서 안동 김씨가 집권하며 세도정치(1800~1863)의 빌미가 되었다.

23. 다음 가상 기행문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동지사, 성절사 등의 명목으로 파견되었다.
- ②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 ③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다.
- ④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이었다.
- ⑤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대일 사절단 통신사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

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 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한편,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① 조선은 명으로 매년 정기적(하정사·성절사·천추사·동지사), 부정기적(사은사·주청사·진하사·진주사 등)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② 개항(1876) 이후 청에도 유학생(영선사)을 파견하여 텐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1881).

④. ⑤ 개항(1876) 직후 김기수(1876)와 김홍집(1880)이 일본에 수신사(공식 외교 사절)로 다녀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젊은 관리들을(조사 시찰단) 일본에 파견하여 여러 정부 기구와 산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시찰하게 하였다(1881).

24.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5# 25.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여 논쟁하고 있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던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왕 그만 하시오. 그만! 뭐라?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야 한다고? 명나라가 그리 좋으면 다들 명에 가서 사시오!

이조판서 전하!

왕 부끄러운 줄 아시오!

신하들

왕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에 군사를 지원하겠소. 그러나 나는 후금을 서신을 보낼 것이요, 도승지는 받아쓰시오! "명이 요청하여 1만 3천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그대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보내 달라."

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②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였다.
 ③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군차비로 충당하였다.
 ④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를 경기도에 처음 실시하였다.
 ⑤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6두로 확정하였다.

정답: ④

* 광해군과 대동법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1608).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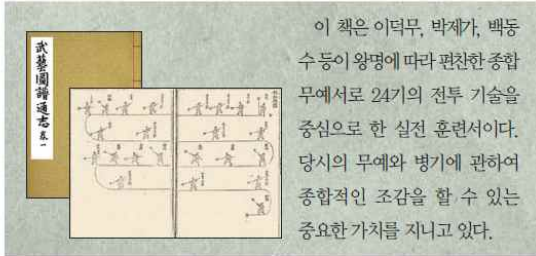
①, ③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다, 영조 때에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기존의 군포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② 직.산관 관료에게 과전을 지급하는 과전법(1391~1466) 하에서는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어,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⑤ 양 난 이후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으로 고통당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인조 때(1635)에 연분 9등법(풍.흉년에 따라 1결당 20~4두)을 따르지 않고, 풍년 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25. 다음 서적을 편찬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종합 무예서로 24기의 전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서이다. 당시의 무예와 병기에 관하여 종합적인 조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① 북방에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명과의 갈등으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 ③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④ 청을 도와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군과 교전하였다.
- ⑤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신설하였다.

정답: ③

*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된 정조 대

정조(1776~1880)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고(준론 탕평),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상언·경쟁의 기회 확대)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

방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하였다(신해통공: 1791)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고,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취고, 국가 각 기관의 기능을 정리한 탁지지, 추관지 등과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편찬)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재정비하였다.

① 세종(1418~1450) 때에 최윤덕 장군을 시켜 여진을 토벌하고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3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34).

② 태조 때(1395)에 표전문(외교문서) 사건으로 인해 명과의 외교 갈등이 벌어지자 당사자로 지목되어 명의 압송 요구를 받은 정도전은 주도적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1397), 1차 왕자의 난(1398)으로 이방원(태종)에 의해 제거당하며 중단되었다.

④ 만주 북부의 헤이룽 강 부근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나선 정벌).

⑤ 임진왜란(1592~1598) 중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사수(활).살수(창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다.

2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서울 근교와 각 지방 대도시 주변의 파·마늘·배추·오이 밭에서는 10무(4두락)의 땅으로 수만 전(수백 냥)의 수입을 올린다. 서북 지방의 담배, 관북 지방의 삼, 한산의 모시, 전주의 생강, 황주의 지황 같은 농민이 가장 잘 되었을 때의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이익이 열 배나 된다.

- 「경세유표」 -

- ① 목화가 처음 전래되었다.
- ② 장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③ 시전이 한양의 종로 거리에 처음 조성되었다.
- ④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⑤ 건원중보가 만들어졌으나 유통은 부진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의 경제상

- 출전인 경세유표(정약용 저)와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작물의 모습에서 조선 후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어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상업에 있어서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私商)이었다. 사상 중 선상인 경강 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 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동전인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① 고려 말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1363)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② 15세기 후반부터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③ 조선 건국 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시전).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⑤ 고려 성종 때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게 되었다.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주로 다.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었고, 유통은 부진하였다.

27.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신문

제△△호 ○○○○년 ○○월 ○○일

조선 후기 화단의 새바람

그는 토화서의 화원 출신으로 풍속화를 비롯하여 산수화와 영모화에도 능했다. 도시 양반들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 사랑 표현 등을 치리검 없이 화폭에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홍도, 장승업과 함께 삼원(三圓)이라 불리며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개척하였던 대표적 화가이다.

(가)



17세기(조선 후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 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1676~1759)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1751)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김홍도(1745~?)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발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김홍도에 버금 가는 풍속화가로는 신윤복(1758~?)이 있었다. 그는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정답: ⑤

*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

- ① 금강 전도 (정선)
- ② 씨름도 (김홍도)
- ③ 노상알현도 (김득신)
- ④ 호취도(豪鷲圖) (장승업)
- ⑤ 미인도 (신윤복)

28.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허생이 안성에서 밤, 대추, 감, 배, 굴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그가 과일을 매점하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과일값이 폭등하자 열 배의 값으로 되팔았다.

- 「허생전」 -

- ① 북학의에서 상공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 ②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 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 ④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⑤ 매매를 금지하는 영업전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려 하였다.

정답: ②

* 중상적 실학자 박지원(1737~1805)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의 소설 등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①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②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1762~1836)은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여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후 각 여(閭) 단위로 여장이 지휘 하에 농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고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에게 井자로 구분한 토지의 8구(사전)를 분배하고 1구(공전)의 수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④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8세기 전반의 유수원(1694~1755)이었다. 그는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⑤ 유형원(1622~1673)의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1681~1763)이었다. 그는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29. 밑줄 그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 ②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경전으로 삼았다.
- ③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 ④ 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 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평등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 민족 종교 동학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도교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동학은 서학, 즉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등 반외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동학이라는 이름도 서학인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후천 개벽(현세의 부귀와 빈천이 바뀐다)을 부르짖어 조선 왕조의 운세가 다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협하게 생각하여 금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1864).

그러나 2대 교주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교리책인 동경대전과 포교 가사책인 용담요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후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② 세도정치기에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도래한다는 정감록의 비기·도참 사상과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미래 불(미륵불)에서 찾는 등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③, 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평등과 내세의 영생을 주장하는 천주교(서학)는 조상에 대한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하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하여 사교로 규정되어 여러 차례 크게 탄압을 받았다.

④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는 을사 5적단을 이끌던 나철, 오기호 등에 의해 창시되었다(1909).

30. (가), (나)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가) 좌우위·신호위·홍위위·금오위·천우위·감문위를 일컫는 군사 편제로 고려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나) 어영청은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정권을 안정 시키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보 기>

- ㄱ. (가) -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특수 부대였다.
 ㄴ. (가) -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중앙군이었다.
 ㄷ. (나) - 용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제되었다.
 ㄹ. (나) - 5군영의 하나로 수도인 한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와 조선 후기의 중앙군(6위, 어영청)

(가)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2군은 용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제된 친위대로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려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6위는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문 수비), 개경의 경비뿐 아니라 국경방위를 맡은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로 구성된 경군(京軍)의 주력부대이다.

지휘관은 상장군(정3품)과 부지휘관인 대장군(종3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방은 이들의 합작기구로 의장은 상장군 중 응양군(서열이 가장 높음)의 상장군이 맡았다.

(나)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사수(활).살수(창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변급료병).

훈련도감에 이어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융청(1624, 경기 북부 방비), 수어청(1626, 남한산성 방비)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1682, 궁궐 방위)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신보(보병).항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31. 지도에 표시된 (가)~(마) 지역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② (나) - 독립 협회가 러시아의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 ③ (다) - 삼별초가 최후의 항쟁을 전개하였다.
- ④ (라)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史庫)가 설치되었다.
- ⑤ (마) - 대한 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다.

정답: ⑤

* 여러 섬들의 역사

-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3년간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오늘날의 부산 영도)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1898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 1270년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무신정권의 중추인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항쟁하였다. 김방경,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 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 시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려, 1603년(선조 36)에서 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였다.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강화도·마니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춘추관실록은 이괄의 난(1624)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마니산 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의 피해를 입어 현종 때 보수하여 1678년(숙종 4)에 가까운 정족산 사고로 옮겨졌으며, 묘향산 사고본은 1633년에 전라도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다.

-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32. (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흥선 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 ②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 ③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들에 의해 격침되었다.
- ④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였다.
- ⑤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정답: ②

* 병인양요와 조선 왕실 의궤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였다. 그 중의 한 부대는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2011년 영구임대 형식으로 반환)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① 두 차례(병인, 신미)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 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1871).

③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을 빌미로 미군이 강화도로 침략해 왔다. 이에 어재연 등이 이끄는 부대는 광성보에서 미군을 막아 내었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한다(1871).

④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충남 덕산 소재)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서양인을 오랑캐로 보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⑤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는 일종의 포함 외교인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33. 밑줄 그은 '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때에 사기를 고무하여 서울 진공의 영(營)을 발하니, 그 목적은 서울로 들어가 통감부를 쳐부수고 성하(城下)의 땡(鬨)을 이루어 저들의 소위 신헌약 등을 파기하여 대대적 활동을 기도(企圖)함이라. …… 전군(全軍)에 명령을 내려 일제히 진군할 것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에 나아가 다다를 때 ……

- 대한매일신보 -

- ①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 ②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 ③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를 목표로 하였다.
- ④ 고종의 권고를 받아 대부분 해산하였다.
- ⑤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⑤

* 13도 창의군과 서울진공작전

정미의병은 일제가 헤이그 특사 사건 (1907.7)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군대해산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일회적인 의병운동이 아니라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좀 더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고 13도 연합의병이 결성될 정도로 조직화된 의병전쟁이었다.

또한 유생과 농민, 해산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 상인, 교사와 학생 등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전쟁이었다.

그러나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으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고, 각국 공사관에 의병부대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내며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총대장:이인영, 군사장:허위)의 조직력 약화(이인영의 부친상 낙향)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1908)

①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 침략 강화와, 집권 세력인 민씨 집권 세력의 소극적 개화정책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며 근대 국가를 수립하였으나 청의 진압으로 3일만에 실패하였다(188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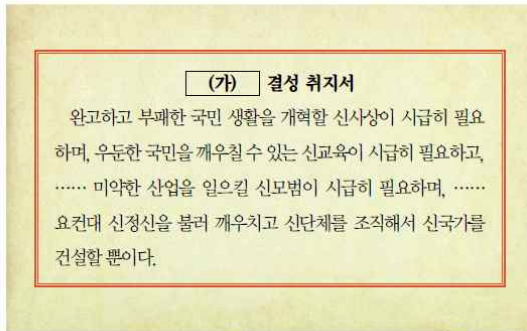
②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과 민중들은 선해청과 일본공사관을 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으나(1882.6). 민비의 사주를 받은 청에 의해 진압되었다.

③ 1907년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 애국계몽운동 단체인新民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④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이었다(1895.8~1896.8).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1896.2) 이후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무너지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의 해산 조치가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34.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 ④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 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대로 조직되었다.

정답: ④

* 신민회(1907~1911)

- 신사상, 신교육, 신모범, 신정신, 신단체, 신국가 등을 통해 신민회임을 알 수 있다.

-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1911년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등이 있으며 산업으로는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독립 운동 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하였다.

②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③ 1919년 11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 주장)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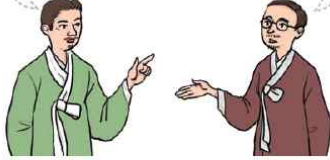
⑤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2.)

35. 밑줄 그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신문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양기탁 선생이 영국인 특파원 베델과 함께 새로운 신문을 창간했다더군.



- ①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 ②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 ③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의 신문이었다.
- ④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민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 ⑤ 국채 보상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정답: ⑤

* 대한매일신보(1904~1910)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7월 18일에 창간되었다.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주한 일본 헌병사령부의 검열을 받지 않고 민족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민족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 되었다.

국한문·한글·영문판 3종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부수도 세 신문을 합쳐 1만 부를 넘어 당시로서는 최대의 신문이 되었다. 논설진으로는 양기탁 외에 박은식, 신채호 등이 있었다.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한 대한 매일 신보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국채 보상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도 참여).

특히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 내용을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월 16일자 제 2면에 3단 전단크기의 대형사진판으로 게재하자, 일제는 여러 가지 탄압을 가하여 발행인 배설은 1907년과 1908년 2차례에 걸쳐 재판에 회부되었고, 양기탁도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1909년 5월 1일 배델이 죽고 난 후, 1910년 6월 1일부터는 발행인이 이장훈으로 바뀌었고, 국권피탈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①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1898~1910)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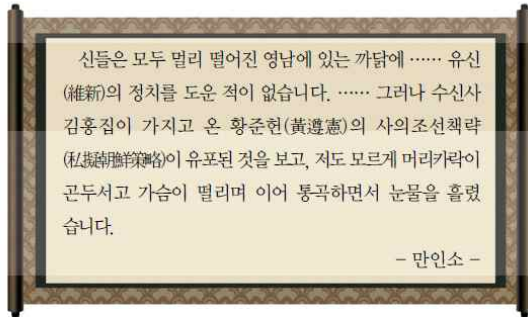
②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1886.1~1888.7)는 최초의 상업광고인 세창양행 광고를 게재하였다.

③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민중을 계몽했고, 일진회 등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천도교계에서는 만세보(1906~1907)를 발행하였다.

④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1896.4~1899.12)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리며 인권을 신장하였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36. 다음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미국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
- ② 의회 설립과 자유 민권을 주장하였다.
- ③ 문벌 폐지와 인민 평등권의 확립을 촉구하였다.
- ④ 폐정 개혁안 실천을 위해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였다.
- ⑤ 조선의 주권을 지킬 방법으로 중립화론을 제안하였다.

정답: ①

* 조선책략과 영남만인소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 (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에 신뢰를 갖고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② 독립협회(1896.7~1898.12)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통하여 자유민권과 의회설립을 추진하였다.

③ 갑신정변(1884.12) 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문벌폐지와 인민평등권의 확립을 촉구하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④ 1894년 6월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은 전주에서 정부와 화약하며 폐정개혁과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여 관철해 내었다.

⑤ 거문도 사건(1885)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 (가)에 들어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운산 금광 채굴권을 준다더군.
- ② 한성에 전차 부설을 허가한다더군.
- ③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 넘어간다더군.
- ④ 내지 통상권을 처음으로 허용한다더군.
- ⑤ 두만강 삼림 채벌권을 내준다고 하더군.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청의 교역량 증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인근 한강인 양화진(楊花津)과 한성(서울)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성의 시전상인과 개항장의 객주 및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④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

임오군란(1882.6) 때에 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청의 군대는 일시 집권한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갔다.

①, ②, ③, ⑤ 미국이 갖은 운산 금광 채굴권, 한성 전차 부설권, 경인선 철도 부설권과 러시아가 갖은 두만강 삼림 채벌권은 모두 아관파천(1896.2) 이후 이루어진 열강의 이권침탈이고, 최혜국 대우를 주장하며 조선 정부로부터 얻어내었다.

38.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얼음 덩어리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밤 12시 정각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려야만 했다. 양세봉 사령관은 전사들에게 소자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먼저 강물에 뛰어 들었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 ②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였다.
- ③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힘을 합쳐 항일 전쟁을 벌였다.
- ④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정답: ③

*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

만주에서는 1920년대 말 전개된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 3부 통합 운동의 결과로 조선 혁명당과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었고, 그 산하에 조선 혁명군(1929)과 한국 독립군(1931)이 편성되었다. 두 독립군 부대는 일제의 만주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항일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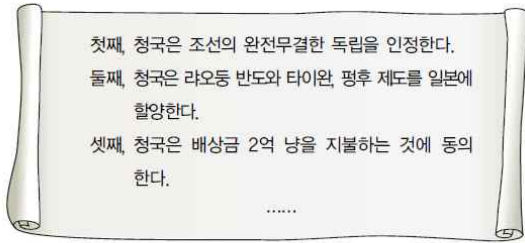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호로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1933년 말,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① 간도참변 이후 제 독립군들은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함께 대한독립군단(총재 서일)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독립군 550여명 희생당하고 917명이 포로가 되는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6).

②, ⑤ 임시정부 산하 직할부대인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1941.12)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참여하였으며,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병력도 합류하여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1942.7).

④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39.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난 정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가.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켰다.
 나.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실시되었다.
 다. 동학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쳤다.
 라. 삼국 간섭의 영향으로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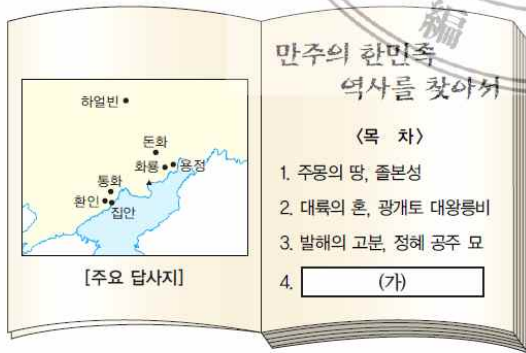
* 시모노세키 조약(1895.4) 체결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명성 황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낭인(浪人)들을 이용하여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명성 황후 시해 사건, 1895.10).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혁, 1895.7~1896.2).

㉠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 침략 강화하와, 집권 세력인 민씨 집권 세력의 소극적 개화정책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며 근대 국가를 수립하였으나 청의 진압으로 3일만에 실패하였다(1884.12).

㉡ 안핵사(이용태)가 고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하자 전봉준(총대장)과 김개남, 손화중 등이 무장에서 재봉기를 하고(1894.4.25.) 고부를 점령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동학군 백산에 집결하고(5.4, 백산 봉기, 4대 강령 선포) 농민군은 황토현(정읍)에서 감영군을 격퇴하고(5.8), 황룡촌(장성)에서 경군을 격퇴(5.25)한 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5.31).

4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외 민족 교육의 요람, 서전서숙
- ② 동양 평화론의 기수, 안중근 의거지
- ③ 위대한 독립군 승리의 현장, 청산리
- ④ 독립군 사관 양성 기관, 신흥 무관 학교
- ⑤ 을사늑약에 저항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순국지

정답: ⑤

* 한민족과 관련된 만주 여러 지역의 역사

북간도: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하여 주민의 80%를 차지할 정도였고, 일찍부터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

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1906, 이상설, 용정), 명동 학교(1908, 김약연, 화룡)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중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1920년 10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기타 독립군 부대와 함께 청산리(화룡)에서 일본군에게 대승리를 거두었다.

남만주(서간도):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통화)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 군정서)을 조직하였다

② 191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북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⑤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인 최익현(1833~1906)은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의병을 지휘하다 체포당하였다. 결국 일본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었고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41.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942년 여름 함흥 영생 고등 여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은 취조 결과 여학생들에게 민족주의 감화를 준 사람이 서울에서 우리말 사전 편찬을 하고 있는 정태진임을 알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5일에 정태진을 연행, 취조해 이 단체가 학술 단체로 위장하여 독립 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백을 강제로 받아내어 회원들을 검거하였다.

- ① 형평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③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 ④ 국문 연구소를 세워 국어의 이해 체계를 확립하였다.
- ⑤ 고전 간행, 귀중 문서의 보존과 전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답: ③

* 조선어학회 사건(1942)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1927)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1933).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조선어학회 사건)로 중단되었다(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

또한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정태진 관련)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 이 때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①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1923)를 중심으로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1907년에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국어문법' 저술, 1910),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⑤ 최남선과 박은식 등은 1910년 10월 '조선광문회'(1910)를 조직하여 역사, 한글, 지리에 관한 여러 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도하였다.

42. 다음 노래가 불러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학도 지원병을 독려하는 문인
- ② 토지 조사령 발표 소식을 들은 농민
- ③ 경성 제국 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관리
- ④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하는 교사
- ⑤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여하는 여성

정답: ①

* 한국 광복군이 활동하던 시기 (1940.9~1945.8)의 사회 모습(민족말살기)

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9.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병력도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여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1942).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① 중일전쟁(1937)을 일으킨 일제는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②, ④ 1910년대 일제는 헌병경찰 통치를 실시하며 관리·교사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하여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재정을 위한 지세 확보를 위하여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시작하였는데,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③ 1920년대 일제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설립하였다.

⑤ 신간회(1927~1931)의 자매 단체로 근우회(1927~1931)가 설립되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43.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 동포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 동포의 눈에, 나라라는 글자가 배회하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나라!

-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나라.

- 「조선상고사」 -

- ①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 ②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③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 ④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 ⑤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답: ⑤

*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

일찍이 대한협회 회보에 ‘역사와 애국심’(1908)을 기고하며 역사를 애국심의 원천으로 이해하였고,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신채호는 해외에서 독립 운동에 몸바쳐 활동하면서(초기 임정: 창조파 -> 무정부주의: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작성) “조선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

악)”, “조선사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는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박은식(1859~1925)**: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북학회 활동, 황성신문 주필 등의 언론 활동을 하였으며, 1909년 ‘유교구신론’을 발표하여 실천적 유교사상(양명학)으로 유교개혁을 주장하였다. 역사학자로서는 개항기 역사를 다룬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특히 우리의 민족정신을 ‘훈’으로 파악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정신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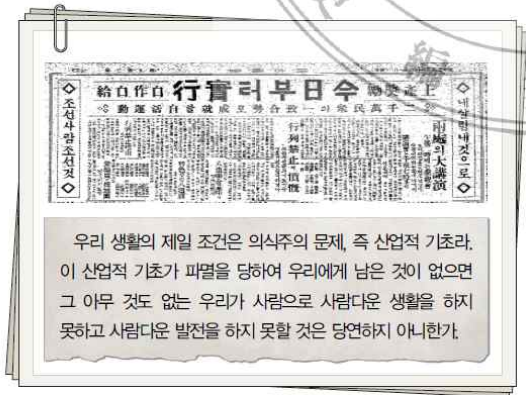
② 1930년대 중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인 정인보(‘조선의 얼’을 강조하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 문일평(조선심 강조), 안재홍(신민족주의 역사학) 등은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어,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랑케의 실증적 사관에 영향을 받은 이병도(1896~1989)는 1934년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를 설립을 주도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며 실증주의 사학을 발달시켰다.

④ 임시정부는 안창호(총재), 이광수(주임)를 중심으로 사료편찬소(1919.7)를 설치하고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였다.

4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 ②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났다.
- ③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였다.
- ④ 학생이 중심이 된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
- ⑤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정답: ③

*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1920년 회사령 폐지와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이 우리 민족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어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와 실력양성을 도모하는 조선청년연합회, 여성단체인 토산애용부 인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② 세계 경제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되어 1930년대에 만연하였다.

④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⑤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였다. 1925년에 본부를 서울로 옮긴 조선 형평사는 1927년에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회원을 크게 늘려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형평사는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파업이나 소작 쟁의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후 형평 운동은 내부에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의 통일성이 상실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3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45.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시작된 소작 쟁의는 지주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지주는 소작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급기야 소작 농민들은 목포로 나가 법원 마당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 (나) 원산에서 일본인 간부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가 발단이 되어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본가와 일제 경찰의 방해 공작으로 파업은 4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보 기>

- ㄱ. (가) - 조선 농민 총동맹이 주도하였다.
 ㄴ. (가) - 참여 농민의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ㄷ. (나) - 국의 노동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ㄹ. (나) - 조선 노동 공제회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암태도 소작쟁의와 원산 총파업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진 상황에서 일제는 지주를 옹호하며 소작농을 억압하는 정책까지 폈다. 이에 3·1 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된 소작농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인 지주나 조선인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등을 요구하는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 운동은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1923년에 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되며 회사·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자 조직도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는 민족 차별적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노예적인 노동 조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을 벌였다.

특히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1924)이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고,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과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며 노동자의 단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동 쟁의가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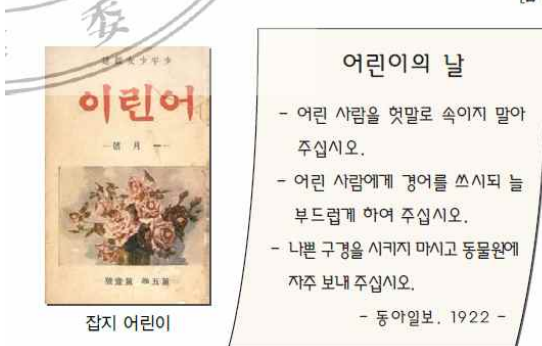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노동 쟁의는 원산노련이 주도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으로 4개월간 투쟁하며 전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도 격려 전문을 보내와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는 공통적으로 1920년대에는 경제적 투쟁(생존권투쟁)에서 성장하여 1930년대에는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지만, 1938년 총동원령 체제 이후에는 소멸되었다

⑤ 1920년 4월 우리 민족 최초의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 단체로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조선 노동 공제회를 결성되었다. 조선 노동 공제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여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발전하였다(1924).

4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천도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② 박은식이 대표가 되어 이끌었다.
- ③ 사립 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 ④ 대한 자강회가 활동을 이어 나갔다.
- ⑤ 독립 협회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

정답: ①

* 1920년대 소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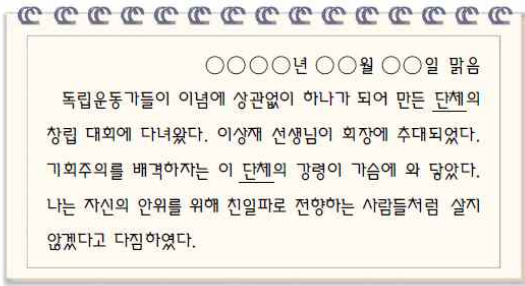
일찍이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③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④ 헌정 연구회(1905년 창설, 입헌군주제 표방)의 후신인 대한자강회(1906년 창설)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하다 일제 통감부에 의해 보안법을 적용받아 강제 해산되었다.

47. 밑줄 그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대한 국민 의회로 계승되었다.
- ② 의열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 ③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진흥하였다.
-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계획하였다.

정답: ⑤

* 좌우합작단체 신간회(1927~1931)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2.)

신간회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

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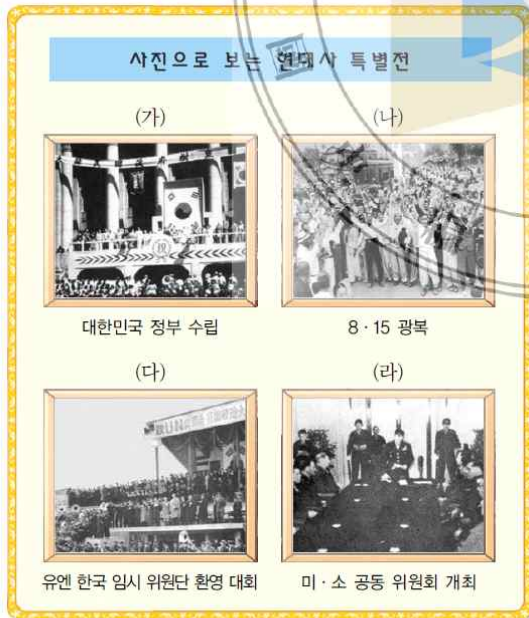
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② 1919년 11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 주장)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갔다.

③ 1919년 11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 주장)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갔다.

④ 신민회(1907~1911) 회원인 이승훈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48.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라) - (다) - (가)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광복(1945.8.15) 직전 건국동맹의 여운형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했기에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미군-직접통치, 소련군-김일성을 내세운 간접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

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었다.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차: 1946.3~5, 2차: 1947.5~8)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론을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7.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남한은 입국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8.15).

49.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 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ㄷ.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였다.
- ㄹ. 민주화 정착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①

* 제헌 국회(1948.5~1950.5)의 활동

1948년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2개 선거구 불능)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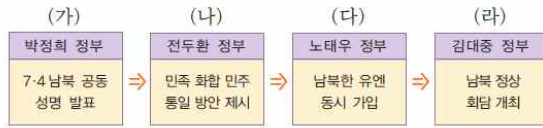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의 원칙에 따라 신성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1948.9)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 공직자윤리법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31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다

㉡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2월 국회에서는 5.18 광주시민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50. (가)~(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가) -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시켰다.
 ㄴ. (나) -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ㄷ. (다) -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ㄹ. (라) -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하타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은 각각 10월 유신과 사회주의 헌법 제정으로 독재를 공고히 하였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비적성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에 상호 내정불간섭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

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1)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88년 노태우 정권은 7.7 선언을 발표하여 북방외교 및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을 천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현재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이어졌고(1998),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개성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입주)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합의·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